

제 11 강 예술(藝術)과 인물(人物)

[1] 崔北(최북)

崔北은 字七七이니 字亦奇矣라. <중략> 一貴人이 要畫於北이나 而不能致라. 將脅之하니 北怒曰 “人不負吾요 吾目負吾라.” 하고 乃刺一目而眇하다.

풀이와 해석

- ◆ 崔北 字七七(최북 자칠칠) 崔北 조선 후기의 화가
- ◆ 一貴人 要畫於北(일귀인 요화어북) 貴人 귀한사람 = 지위가 높은 사람 於 ~에게
- ◆ 將脅之(장협지) 장차 그를 위협하니 之 : 그(대명사)
- ◆ 人不負吾 吾目負吾(인불부오 오목부오) 다른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오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최북의 자가 칠칠이니 자 또한 기이하다. 한 귀인이 최북에게 그림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차 그를 위협하려고 하니, 최북이 노하여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구나.”하고 이에 한쪽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

본문 속의 한자

崔 성 최 奇 기이할 기 致 이를 치 脅 으를 협 怒 성낼 노 負 질 부, 저버릴 부 刺 찌를 자 眇 애꾸눈 묘

[2] 李澄(이징)

李澄이 幼登樓而習畫하니 家失其所在라가 三日乃得이라. 父怒而笞之어늘 泣引淚而成鳥하니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라.

풀이와 해석

- ◆ 李澄(이징) 조선 중기의 화가
- ◆ 家失其所在(가실기소재) 失=잃을 실=모르다, 所在=있는 바=있는 곳
- ◆ 三日乃得(삼일내득) 得=얻을 득=(능히) 할 수 있다=찾을 수 있었다
- ◆ 父怒而笞之(부노이답지) 笞之 그(李澄)를 때리다
- ◆ 此可謂忘榮辱於畫者也(차가위망영욕어화자야) 可謂 ~라고 말 할만하다.

이징이 어릴 때 다락에 올라가 그림을 익히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몰라서 사흘 만에 마침내 찾아냈다. 부친이 노하여 그를 때렸는데 울면서도 (흐르던) 눈물을 끌어다 새를 그리고 있었으니, 이는 그림에 (빠져) 영욕을 잊은 것이라고 이를 만하다.

본문 속의 한자

澄 맑을 징 幼 어릴 유 登 오를 등 樓 다락 루 瞿 익힐 습 筓 불기칠 태 泣 울음 引 끌 인
淚 눈물 루 忘 잊을 망 榮 영화로울 영 辱 욕될 욱

[3] 崔興孝(최흥효)

崔興孝通國之善書者也라 嘗赴舉書卷에 得一字한대 類王羲之하여 坐視終日이러가
忍不能捨하여 懷卷而歸하니 是可謂得失不存於心耳라

품어와 해석

- ◆ 崔興孝通國之善書者也(최흥효통국지선서자야) 通國 온 세상 善 잘하다
- ◆ 嘗赴舉書卷(상부거서관) 赴舉 과거를 보러 나아가다(보러가다) 書卷 답안지를 쓰다
- ◆ 得一字(득일자) 한 글자를 얻었는데(글자를 쓰다가 한 글자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 ◆ 類王羲之(유왕희지) 왕희지(의 글씨)와 비슷하여
- ◆ 忍不能捨(인불능사) 忍 차마~
- ◆ 是可謂得失不存於心耳(시가위득실불존어심이) 可謂 말 할 만하다. 耳 ~따름이다. ~뿐이다

최흥효는 온 나라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과거 보러 가서 답안지를 쓸 때 한 글자를 얻었는데 왕희지의 서체와 비슷하여 종일 앉아서 보다가 차마 낼 수 없어서 답안지를 품고 돌아왔다. 이것은 '득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를 말한다.

본문 속의 한자

崔 성 최 興 흥할 흥 通 통할 통 赴 나아가갈 부 舉 들 거 卷 책 권 類 무리 류 忍 참을 인
捨 버릴 사 懷 품을 회

제 12 강 역사(歷史) 속 인물(人物)

[1] 溫達

“長必不得爲士大夫妻요 當歸之愚溫達이라.” 하며 王每言之라. 及女年二八에 欲下嫁於上部高氏하니 公主對曰 “大王常語에 汝必爲溫達之婦라하시니 今何故로 改前言乎잇가? 匹夫도 猶不欲食言이어늘 況至尊乎잇가?

풀이와 해석

- ◆ 長必不得爲士大夫妻(장필부득위사대부처) 不得 ~할 수 없다
- ◆ 當歸之愚溫達(당귀지우온달) 歸 시집가다
- ◆ 及女年二八(급여년이팔) 及 미치다 ~이 되다. 年二八 16세
- ◆ 匹夫 猶不欲食言(필부 유불욕식언) 匹夫 평범한 사내 食言 말을 먹다 =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다.
- ◆ 況至尊乎(황지존호) 至尊 = 지극히 높은 사람 = 임금을 공경하여 이르는 말

“어른이 되면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될 수 없을 것이요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겠다.” 라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딸이 나이가 열여섯 살이 되자 상부(상부) 고씨(고씨)에게 시집보내 려고 하니 공주가 마주 대하여 말하기를 “임금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오히려 식언을 하지 않거늘 하물며 임금에 있어서겠습니까?

본문 속의 한자

歸 돌아갈 귀 愚 어리석음 우 每 매양 매 及 미칠 급 嫁 시집갈 가 對 대할 대 婦 아내 부
改 고칠 개 匹 짝 필 猶 오히려 유 況 하물며 황 尊 높을 존

※ 본문 앞에 생략된 부분

溫達은 高句麗平岡王時人也라. 容貌龍鍾可笑나 中心則粹然이라. 家甚貧하여 常乞食以養母한대 破衫弊履로 往來於市井間하니 時人이 目之爲愚溫達이라. 平岡王少女兒好啼하여 王戲曰 “汝常啼하여 聒我耳하니 ~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얼굴 생김새는 볼품 없어 웃을 만하였으나 마음씨는 순수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떨어진 옷과 해진 신으로 시장 사이를 오가니 당시 사람 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여 임금이 놀리며 말하기를 “네가 항상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2] 萬德

聖上十九年乙卯에 耽羅大饑하니 民相枕死라. <중략>
 於是에 萬德이 捐千金買米하니 陸地諸郡縣棹夫가 以時至라.
 萬德이 取十之一하여 以活親族하고 其餘는 盡輸之官이라. 浮黃者가 聞之하고
 集官庭如雲하니 官이 劑其緩急하여 分與之有差하니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하여
 咸以爲活我者萬德이라.

풀이와 해석

- ◆ 聖上十九年乙卯(성상십구년을묘) 聖上 살아있는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 을묘년(1795) .
- ◆ 浮黃者(부황자) 浮黃 오래 굶어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 ◆ 分與之有差(분여지유차) 分與之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 ◆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남약여출이송만덕지은) 若 ~와
- ◆ 咸以爲活我者萬德(함이위활아자만덕) 以爲 : ~라고 여기다, ~라고 하다. ~라고 말하다.

정조 19년 을묘년에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의 시체가 쌓였다.(중략)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니 육지 여러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추어 이르렀다. 만덕이 10분의 1을 취하여 친족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 부황이 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관아의 뜰에 구름같이 모였다. 관아에서 완금을 조절하여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며 모두 우리를 살린 사람은 만덕이라고 하였다.

본문 속의 한자

饑 굶주릴 기 枕 벨 침 捐 줄 연 質 바꿀 무 陸 물 륙 諸 모두 제 郡 고을 군 縣 고을 현
 棹 노 도 輸 보낼 수 浮 뜰 부 劑 조절할 제 緩 느릴 완 急 급할 급 頌 기릴 송

※ 본문 앞에 생략된 부분

萬德者는 姓金이니 耽羅良家女也라. 幼失母하고 無所歸依러니 托妓女爲生이라. (중략) 其才가 長於殖貨하여 能時物之貴賤하여 以廢以居하니 至數十年에 頗以積著名이라.

만덕은 성이 김씨이니 제주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자 기녀에게 의탁해 생활하였다. (중략) 재물을 늘리는데 재주가 뛰어나 물건 값이 귀하고 천한 때를 맞추어 내다 팔고 사다 두니 수십 년에 이르러 자못 돈을 모은 것으로 이름이 났다.

제 13 강 민족(民族)과 전통(傳統)

[1] 弘益人間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어늘 數意天下 하여 貪求人世 하니 父知子意 하고
下視三危太伯 하니 可以弘益人間 이라. 乃授天符印三箇 하여 遣往理之 하니라.
雄이 率徒三千 하여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 하고 謂之神市 라 하니 是謂桓雄
天王也 라.

풀이와 해석

- ◆ 昔(석) 옛날에
- ◆ 有桓因庶子桓雄(유환인서자환웅) 庶子 말아들이 아닌 둘째 이하의 아들
- ◆ 數意天下(삭의천하) 數 자주 삭, 자주 천하(하늘 아래)에 뜻을 두다. ※ 數 셈 수, 자주 삭, 좃좃할 좃
- ◆ 下視三危太伯(하시삼위태백) 三危太伯 확실한 설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지역을 나타내는 말
- ◆ 可以弘益人間(가이홍익인간) 可以 ~할 수 있다. 人間 인간세상
- ◆ 乃授天符印三箇(내수천부인삼개) 天符印 일반적으로는 고대사회의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로 여겨진다.
- ◆ 遣往理之(견왕리지) (환웅으로 하여금) 가게 하여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 ◆ 降於太伯山頂神壇樹下(강어태백산정신단수하) 降於 ~에 내려오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 하였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라고 부르니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본문 속의 한자																							
昔	옛	석	桓	굳셀	환	因	인할	인	庶	여러	서	雄	수컷	웅	數	셈	수,	자주	삭	貪	탐할	탐	
求	구할	구	視	볼	시	危	위태할	위	弘	클	홍	授	줄	수	符	부적	부	印	도장	인	箇	날	개
遣	보낼	견	往	갈	왕	理	다스릴	리	率	거느릴	솔,	徒	비율	를	徒	무리	도	降	내릴	강,	향	복할	항
頂	이마	정	神	귀신	신	壇	단	단	樹	나무	수												

[2] 世宗御製 訓民正音

國之語音이 異乎中國하여 與文字로 不相流通할새 故로 愚民이 有所欲言하여도 而終不得伸其情者가 多矣라. 予爲此憫然하여 新制二十八字하니 欲使人人으로 易習하여 便於日用耳니라.

풀이와 해석

- ◆ 御製(어제) 임금의 직접 만든
- ◆ 異乎中國(이호중국) 중국과 달라서 乎 ~과(비교)
- ◆ 而終不得伸其情者(이종부득신기정자) 終 마침내 끝내(부사) 不得伸 능히 펴지 못하다
- ◆ 欲使人人(욕사인인) 使 ~로 하여금(사동) 人人 사람마다
- ◆ 便於日用耳(편어일용이) 便 편할 편 於 ~에 耳 ~일 따름이다(한정) = 而已, 而已矣

<세종대왕이 몸소 지으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한자)와 더불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도록 할 따름이다.

본문 속의 한자

御 임금 어 製 지을 제 訓 가르칠 훈 異 다를 이 乎 어조사 호 與 더불어 流 흐를 류 通 통할 통
故 까닭 고 愚 어리석을 우 終 마칠 종 得 얻을 득 伸 펼 신 予 나 여 憫 불쌍이여길 민 然 그럴 연
制 만들 제 使 하여금 사 易 쉬울 이 便 편할 편 耳 따름 이

제 14 강 역사(歷史)와 소설(小說)

[1] 李舜臣

追至南海界하여 舜臣이 親犯矢石力戰이라가 有飛丸이 中其胸이어늘 左右가 扶入帳中하니 舜臣曰 "戰方急하니 慎勿言我死라 하니라."

풀이와 해석

- ◆ 追至南海界(추지남해계) 南海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일어났던 남해도 부근
- ◆ 親犯矢石力戰(친범시석력전) 親 친히 犯 무릅쓰다 矢石 화살과 돌
- ◆ 有飛丸(유비환) 有 어떤
- ◆ 中其胸(중기흉) 中 (가운데에) 맞다
- ◆ 左右(좌우) 좌우에 서있는 사람, 측근
- ◆ 扶入帳中(부입장중) 扶 부축하다
- ◆ 慎勿言我死(신물언아사) 勿 ~하지 말라(금지)

(이순신이 왜군을 쫓아 남해의 경계에 이르러 이순신이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가 어떤 날아온 탄환이 그의 가슴을 맞혔다. 측근들이 장막 안으로 부축하여 들어가니 이순신이 말하기를 "싸움이 바야흐로 위급하니 삼가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본문 속의 한자

追 쫓을 추 界 경계 계 舜 순임금 순 犯 범할 범 矢 화살 시 戰 싸울 전 飛 날 비 丸 구슬 환
胸 가슴 흉 扶 도울 부 帳 휘장 장 急 급할 급 慎 삼갈 신

[2] 許生傳

一日 妻甚飢하여 泣曰 "子平生에 不赴學하니 讀書何爲오?" 許生이 笑曰 "吾 讀書未熟이로다." 妻曰 "不有工乎아?" 生曰 "工未素學하니 奈何오?" 妻曰 "不有商乎아?" 生曰 "商無本錢하니 奈何오?" 其妻 恚且罵曰 "晝夜讀書러 니 只學奈何오?. 不工不商이면 何不盜賊고?" 許生이 掩卷起曰: "惜乎라! 吾 讀書에 本期十年이러니 今七年矣로다." 하고 出門而去하니 無相識者라. 直之雲 從街하여 問市中人曰 "漢陽中에 誰最富오?" 有道卞氏者라.

풀이와 해석

- ◆ 子平生 不赴學 讀書何爲(자평생 불부거 독서하위) 子 2인칭 赴學 과거에 나아가다(응시하다)
- ◆ 妻曰 不有工乎(처알 불유공호) 不有~乎 ~이 있지 않습니까?(의문형)
- ◆ 工未素學 奈何(공미소학 내하) 素 본디 = 本 奈何 어찌하겠소
- ◆ 惜乎 吾讀書 本期十年(석호 오독서 본기십년) 惜乎 애석하구나(감탄) 期 기약하다.
- ◆ 直之雲從街(직지운종가) 直 곧바로, 곧장(부사) 之 가다 雲從街 지금 서울의 종로
- ◆ 有道卞氏者(유도변씨자) 道 말하다

하루는 아내가 몹시 굶주려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 독서는 무엇하려고 하세요?" 허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내 책읽기가 아직 덜 됐소." 아내가 말하기를, "장인 바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말하기를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질 않았으니 어찌 하겠소?" 아내가 말하기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말하기를 "장사는 본전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아내가 성내며 꾸짖어 말하기를,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어찌하겠소'만 배웠소? 장인바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면 도적질은 왜 못해요?"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서며 말하기를, "애석하도다, 내가 책을 읽기를 본디 10년을 기약했는데 지금 칠년째로다." 하고 문을 나서서 길을 가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 곧바로 운종가로 가서 저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요?"라고 하니, 변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본문 속의 한자

妻 아내 처 甚 심할 심 飢 굶주릴 기 泣 울 읊 赴 나아갈 부 學 들 거 笑 웃을 소 未 아닐 미 熟 익을 숙 素 바탕 소 奈 어찌 내 商 헤아릴 상 錢 돈 전 恚 성낼 에 且 또 차 罵 꾸짖을 매 盜 훔칠 도 賊 도둑 적 掩 덮을 엄 卷 책 권 起 일어날 기 惜 아길 석 期 기약할 기 誰 누구 수 最 가장 최 道 말할 도 卞 성 변 氏 성씨 씨

제 15 강 풍속(風俗)과 지리(地理)

[1] 元日

京都俗에 歲謁家廟하고 行祭曰: '茶禮'요, 男女年少卑幼者가 皆着新衣曰: '歲粧'이요, 訪族戚長老曰: '歲拜'라 하다.

풀이와 해석

- ◆ 京都俗(경도속) 京都 서울(한양)
- ◆ 歲謁家廟(세알가묘) 謁 뵈 알 -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만나 뵈는 일, 가묘 한집안의 사당
- ◆ 茶禮(차례) 차례 ◆ 男女年少卑幼者(남녀연소비유자) 卑幼者 항렬이 낮고 나이가 어린자
- ◆ 歲粧(세장) 설빔 ◆ 長老(장로) 나이 많고 덕인 많은 사람의 존칭

서울 풍속에 설날 집안의 사당에 배알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 한다. 남녀 나이 어린 사람들이 모두 새 옷을 입는 것을 '세장'이라 한다. 친척과 웃어른을 찾아뵈는 것을 '세배'라 한다.

[2] 秋夕

王既定六部하고 中分爲二하여 使王女二人으로 各率部內女子하고 分朋造黨하다. 自秋七月旣望으로 每日早集大部之庭하여 績麻하여 乙夜而罷하다. 至八月十五日하여 考其功之多少하여 負者가 置酒食하여 以謝勝者하다. 於是에 歌舞百戲를 皆作하니 謂之 '嘉俳'라 하다.

풀이와 해석

- ◆ 使王女二人(사왕녀이인) 왕녀 2인으로 하여금 使(사동) 使 令, 敎, 遣, 俾
- ◆ 自秋七月旣望(자추칠월기망) 自 ~로부터 旣望 음력 16일
- ◆ 乙夜而罷(을야이파) 乙夜(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
- ◆ 至八月十五日(지팔월십오일) 至~에 이르기까지
- ◆ 考其功之多少(고기공지다소) 考 살펴보다
- ◆ 負者 置酒食 以謝勝者(부자 치주식 이사승자) 以 = 而(말이을 이) ~하여서(그래서)
- ◆ 歌舞百戲 皆作(가무백희 개작) 作 행하여지다

왕이 미리 육부를 정하고 가운데를 나누어 둘로 하여 왕녀 두 사람에게 각각 부락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도록 하였다. 가을 7월 16일부터 매일 이른 아침에 큰 부(部)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여 울야(밤늦게)에 끝냈다. 8월 15일에 이르러서 그 공의 많고 적음을 살피어서, 진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이에 노래와 춤,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였으니, 이를 '가배'라고 한다.

본문 속의 한자

都 도읍 도 俗 풍속 속 歲 해 세 謁 빌 알 廟 사당 묘 茶 차 다, 차 차 禮 예절 레 車 낮을 비
幼 어릴 유 皆 모두 개 羞 입을 착 粧 단장할 단 訪 찾을 방 威 거레 척 拜 절 배 既 이미 기
各 각각 각 率 거느릴 솔 比율 룰 部 나눌 부 黨 무리 당 望 보름 망, 바라볼 망 무 이를 조
續 길쌈할 적 麻 삼 마 罷 그칠 파 考 살펴볼 고 負 질 부 圖 돌 치 舞 춤출 무 戲 놀 희
皆 모두 개 嘉 아름다울 가 俳 광대 배

[3] 獨島

于山·武陵 二島는 在縣正東海中이라. 二島相去不遠하여 風日清明이면 則可望見이라. 新羅時에 稱于山國이라.

풀이와 해석

- ◆ 于山·武陵(우산·무릉) 于山은 독도, 武陵은 울릉도
- ◆ 于山國(우산국) 삼국시대에 현재의 경상북도 울릉군인 울릉도와 부속 섬을 다스리던 나라.

우산·무릉 두 섬은 현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두 섬이 서로 떨어진 것이 멀지 않아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일컬었다. 바람 부는 날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 일컬었다.

본문 속의 한자

于 어조사 우 武 군셀 무 陵 언덕 룡 縣 고을 현 羅 비단 라 稱 일컬을 칭

제 16 강 한시(漢詩) (1)

[1] 尋隱者不遇(심은자불우)

가도(賈島) / 당(唐), 779?~843

松 下 問 童 子 하 니
 言 師 採 藥 去 라 .
 只 在 此 山 中 이 나 ,
 雲 深 不 知 處 라 .

풀이와 해석

- ◆ 형식 : 오언절구(五言絶句)
- ◆ 운자 : 去, 處
- ◆ 尋隱者不遇(심은자불우)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 ◆ 言師採藥去(언사채약거) '스승님이 약(초)을 캐러 가셨다'라고 말하네(言)
- ◆ 只在此山中(지재차산중) 只 다만(한정)
- ◆ 雲深不知處(운심부지처) 雲深 산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많다.
處 (스승님이) 계시는 곳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 스승은 약초를 캐러 갔다고 말하네
 다만 이 산속에 있으시겠지만, / 구름이 깊어서 계신 곳을 알지 못하네

은자(隱者)를 찾으러 간 사람과 동자의 짧은 문답으로 이루어진 한시(漢詩)이다. 은자를 만나러가서 만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욱 은자답게 비춰지고 있다.

한시는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눌 수 있다. 당나라 때 형식이 갖춰진 근체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한시를 고체시라고 한다. 근체시가 구의 수, 글자 수, 운율 등의 규칙이 엄격하고 절구와 율시가 여기에 속하는 반면 고체시는 모든 형식에서 자유스럽다. 근체시 중 5자씩 4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오언절구, 7자씩 4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칠언절구라 하고, 율시는 구의 수가 8구로 된 것이고, 5자씩 8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오언율시, 7자씩 8구로 이루어진 한시를 칠언율시라고 한다.

본문 속의 한자

尋 찾을 심 隱 숨을 은 遇 만날 우 松 소나무 송 童 아이 동 師 스승 사 採 캐 채 藥 약 약
 只 다만 지 在 있을 재 此 이 차 雲 구름 운 深 깊을 심 處 곳 처

[2] 春興(춘흥)

정몽주(鄭夢周) / 고려(高麗), 1337~1392

春雨細不滴러니
夜中微有聲이라.
雪盡南溪漲하니
草芽多少生고.

풀이와 해석

- ◆ 형식 : 오언절구(五言絶句)
- ◆ 운자 : 聲, 生
- ◆ 春雨細不滴(춘우세부적) 봄비가 가늘게 내리는 것을 표현
- ◆ 夜中微有聲(야중미유성) 봄날 저녁, 소리 없이 비가 내려 대지를 적신다
- ◆ 雪盡南溪漲(설진남계창) 뾰족 눈이 다하다(봄이 되어 눈이 녹다) / 漲(눈이 녹아) 시냇물이 넘친다
- ◆ 草芽多少生(초아다소생) 얼마쯤(다소) 풀싹이 돋았을까?(봄이 되어 생명이 시작함)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밤중에 희미하게 소리 들리더라.
눈 녹아 남쪽 개울물 불어나리니
얼마나 풀싹이 돋았을까?

한시(漢詩)의 시상 전개방식

- 1구 - 기(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 2구 - 승(承)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하고 발전시킴
- 3구 - 전(轉) 시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전환시킴
- 4구 - 결(結) 전체의 시상과 분위기를 마무리함

본문 속의 한자

興 흥할 흥 細 가늘 세 滴 물방울 적 微 작을 미 聲 소리 성 霽 눈 설 盡 다할 진 溪 시내 계
漲 불을 창 芽 싹 아

[3] 春曉(춘효)

맹호연(孟浩然) / 당(唐), 689~740

春眠不覺曉
處處聞啼鳥
夜來風雨聲
花落知多少

풀이와 해석

- ◆ 형식 : 오언절구(五言絶句)
- ◆ 운자 : 曉, 鳥, 少
- ◆ 春眠不覺曉(춘면불각효) 계절의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음을 표현
- ◆ 處處聞啼鳥(처처문제조) 處處 곳곳에서 / 聞啼鳥 압운을 맞추기 위한 도치
- ◆ 夜來風雨聲(야래풍우성) 風雨 봄을 지나가게 하는 반갑지 않은 소재
- ◆ 花落知多少(화락지다소) 知(추측) 알겠구나 / 多少 얼마나, 얼마쯤

봄잠에 새벽 오는 줄 몰랐더니,
곳곳에서 새소리 들리는구나.
밤새워 내린 비바람 소리에,
꽃들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압운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모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五言絶句의 경우	○ ○ ○ ○ ●	七言絶句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 속의 한자

曉 새벽 효 眠 잠잘 면 覺 깨달을 각 處 곳 처 聞 들을 문 啼 울 제 聲 소리 성 落 떨어질 락

제 17 강 한시(漢詩) (2)

[1] 訪金居士野居 (방김거사야거) 정도전(鄭道傳) / 조선(朝鮮), 1342~1398

秋陰漠漠四山空한데
 落葉無聲滿地紅이라.
 立馬溪橋問歸路하니
 不知身在畫圖中이라.

풀이와 해석

- ◆ 형식 : 칠언절구(七言絶句)
- ◆ 운자 : 空, 紅, 中
- ◆ 訪金居士野居(방김거사야거) 居士 숨어 살며 벼슬하지 않는 선비
- ◆ 秋陰漠漠四山空(추음막막사산공) 秋陰 가을 구름, =秋雲 / 空 인적이 없음 / 漠漠 아득한 모양
- ◆ 落葉無聲滿地紅(낙엽무성만지홍) 滿地紅 붉게 물든 잎이 떨어져 온 땅을 붉게 물들인 모양
- ◆ 立馬溪橋問歸路(입마계교문귀로) 歸路 돌아가는 길
- ◆ 不知身在畫圖中(부지신재화도중) 자신이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착각을 일으킴
 =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

가을 구름은 아득하고 온 산은 비었는데
 낙엽은 소리 없이 온 땅을 붉게 하네.
 시냇가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물으니,
 내 몸이 그림 속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구나

시상 전개 방식 - 先景後情
 선경후정(先景後情)은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감정을 뒤에 표현한다'는 뜻으로,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의 하나이다. 즉, 시의 앞부분에서 자연의 경치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읊는 것이다.

본문 속의 한자

訪 찾을 방 居 머무를 거 野 들 야 陰 그늘 음 漠 조용할 막 空 빌 공 業 業 聲 소리 성 滿 찰 만
 地 땅 지 紅 붉을 홍 溪 시내 계 橋 다리 교 歸 돌아올 귀 路 길 로 畫 그림 화 圖 그림 도

[2] 自述(자술)

이옥봉(李玉峯) / 조선(朝鮮중기)

近來安否問如何오.
月白紗窓妾恨多라.
若使夢魂行有跡이런
門前石路已成沙라.

풀이와 해석

- ◆ 형식 : 칠언절구(七言絶句)
- ◆ 운자 : 何, 多, 沙
- ◆ 自述(자술) 스스로 글을 짓다. 이 한시의 제목은 '夢魂(몽혼)'이라고도 한다.
- ◆ 近來安否問如何(근래안부문여하) 如何 어떠한가?
- ◆ 月白紗窓妾恨多(월백사창첩한다) 白 밝다 / 妾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던 말 / 紗窓 깃(고운 견직물)으로 바른 창
- ◆ 若使夢魂行有跡(약사몽혼행유적) 若 만약 / 使 하여금 / 夢魂 꿈속의 녀 = 꿈속의 나
- ◆ 門前石路已成沙(문전석로이성사) 과장법으로 그리움을 극대화

요즘 안부 어떠하신지 묻사옵니다.
달 밝은 창가에서 이 몸 한도 많습시다.
꿈속의 나의 녀이 다닌 자취 남긴다면
문 앞 돌길 이미 모래 되었을 것이옵니다.

한시(漢詩)의 끊어 읽기 -
五言詩(오언시) : 2자 3자로 띄어 읽는다. ○○/○○○
七言詩(칠언시) : 4자와 3자로 띄어 읽는다. ○○○○/○○○

본문 속의 한자

述 지을 술 近 가까울 근 否 아니 부 如 같을 여 何 어찌 하 紗 깃 사 窓 창 창 妾 첩 첩
恨 한할 한 若 만약 약 使 하여금 사 夢 꿈 몽 魂 녀 혼 跡 자취 적 路 길 로 已 이미 이
沙 모래 사

[3] 送人(송인)

정지상(鄭知常) / 고려(高麗), ?~1135

雨歇長堤草色多하니
送君南浦動悲歌라.
大同江水何時盡고
別淚年年添綠波라.

풀이와 해석

- ◆ 형식 : 칠언절구(七言絶句)
- ◆ 운자 : 多, 歌, 波
- ◆ 雨歇長堤草色多(우혈장제초색다) 多 비로 먼지가 씻겨내려 풀빛들이 짙어(많아)보임
- ◆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動 정서상의 슬픈노래가 울려퍼짐을 표현
- ◆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지진) 이별의 간접적 매개체인 강물을 원망함
- ◆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과장법이 사용 → 슬픔의 극대화

비 그친 긴 강둑에 풀빛이 짙은데
남포에서 임 보내니 슬픈 노래 울려퍼지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다 마르겠는가?
이별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한시(漢詩)의 시상 전개방식 - 율시

1•2구 - 수(首) 3•4구 - 함(頌) 5•6구 - 경(頸) 7•8구 - 미(尾)

대우법(對偶法) 일반적으로 율시의 함련과 경련이 대우를 이룬다.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절구에서는 기구와 승구, 절구와 결구에서 대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문 속의 한자

送 보낼 송 歇 갠 혈 堤 둑 제 君 그대 군 浦 물가 포 動 움직일 동 悲 슬플 비 歌 노래 가
 盡 다할 진 別 다를 별 淚 눈물 루 添 더할 첨 綠 푸를 록 波 물결 파

제 18 강 명문(名文)

雜說(잡설)

한유(韓愈) / 당(唐), 768~824

世有伯樂然後에 有千里馬하니 千里馬는 常有나 而伯樂은 不常有라.
 故로 雖有名馬나 祇辱於奴隸人之手하고 駢死於槽櫪之間하여 不以千里稱也니라.
 馬之千里者는 一食에 或盡粟一石이어늘 食馬者가 不知其能千里而食也하니
 是馬가 雖有千里之能이나 食不飽하고 力不足하여 才美不外見하며 且欲與常馬等이나
 不可得하니 安求其能千里也리오. 策之不以其道하고 食之不能盡其材하며
 鳴之不能通其意어늘 執策而臨之曰 "天下에 無良馬라." 하니 嗚呼라! 其眞無馬耶아?
 其眞不識馬耶아?

풀이와 해석

- ◆ 伯樂(백락)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훌륭한 말을 잘 구분했던 사람.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을 비유.
- ◆ 千里馬(천리마)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 훌륭한 인재를 비유.
- ◆ 不常有(불상유) 항상(늘) ~하지는 않다 (부분부정)
- ◆ 祇辱於奴隸人之手(지욕어노예인지수) 祇 다만 지, 辱於 ~에게 욕을 당하다.
- ◆ 駢死於槽櫪之間(변사어조력지간) 駢死 나란히 죽다 槽櫪之間 말구유와 마판 사이 = 마굿간
- ◆ 食 : 먹을 식, 먹일 사
 馬之千里者 一食(식), 食(사)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사)也, 食(식)不飽, 食(사)之不能盡其材
- ◆ 才美不外見(재미불외현) 見 드러날 현
- ◆ 不可得(불가능) 不可能
- ◆ 策之不以其道(책지불이기도) 道 (천리마를 돌보는) 올바른 방법
- ◆ 其眞無馬耶(기진무마야) 耶 의문, 감탄, 반어 등의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

세상에 백락이 있는 이후에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나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뛰어난 말이 있을지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모욕을 당하고 말구유와 마구간 사이에서(평범한 말들과) 나란히 죽어서 천리마로 불리지 못한다. 말 중에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것은 한 번 먹을 때 혹은 곡식 한 섬을 다 먹는데, 말을 먹이는 사람은 그것이 천 리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먹이니, 이 말이 비록 천리를 달리는 능력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않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와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평범한 말과 같아지려 해도 같을 수 없으니, 어찌 그것이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기를 바라겠는가? 채찍질하기를 알맞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뜻을 알아주지 못하면서 채찍을 잡고 다가가서 말하기를 “세상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하니, 아! 진실로 말이 없는가?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한유(韓愈, 768~824) 당나라의 문인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千里馬)라도 그 능력을 알아주는 백락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평범한 말과 함께 지내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재능을 펼칠 수 없는 것이다. 한유는 본인을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며 이 글을 지었다.

본문 속의 한자

常 항상 상 雖 비록 수 祇 다만 지 辱 욕될 욕 奴 종 노 隸 종 레 駢 나란할 변
槽 말구유 조 櫪 마판 력 稱 일컬을 칭 粟 곡식 속 等 같을 등 安 어찌 안 策 채찍 책
材 재목 재 鳴 탄식할 오 臨 임할 임 呼 부를 호 良 좋을 량 識 알 식 耶 어조사 야

제 19 강 제자백가(諸子百家) (1)

[1] 論語

-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愠이면 不亦君子乎아?
- 惟仁者라야 能好人하며 能惡人이니라.
-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니라.
- 由야! 誨女知之乎인저.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 是知也니라.
- 吾十有五而志于學하고 三十而立하고 四十而不惑하고 五十而知天命하고 六十而耳順하고 七十而從心所欲하되 不踰矩하니라.
- 季康子가 問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帥以正이면 孰敢不正이리오?"

풀이와 해석

-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들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不亦~乎 또한 ~가 아니겠는가? / 說 기쁨 열 = 悅
- ◆ 惟仁者 能好人 能惡人 (유인자 능호인 능오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 ◆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배우기만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罔 없을 망, 어두울 망 = 무식한 모양
- ◆ 君子 周而不比 小人 比而不周 (군자 주이불비 소인 비이부주)
군자는 두루 사귀되 무리 짓지 않고 소인은 무리 짓되 두루 사귀지 않는다.
周 두루 (사귀다) 比 쫓아다니며 무리 짓다

- ◆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유 회여지지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유아! 너에게 얹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 由 공자의 제자인 중유(仲由)의 이름
 女 너 = 이인칭 女(여), 汝(여), 而(이), 爾(이), 若(약), 君(군), 子(자), 乃(내)
 知之 안다는 것 是知也 이것이 아는 것이다. = 이것이 (진정한)얹이다.

- ◆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오십유오이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호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고,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에 귀가 순해지고, 일흔 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于(어조사 우) ~에 = 於와 통용

※ 공자가 말한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
 15세=志(于)學, 30세=而立, 40세=不惑, 50세=知天命, 60세=耳順, 70세=從心

※ 그 외의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
 弱冠(약관) 20세,
 古稀(고희) 70세 두보(杜甫)의 '곡강(曲江)' 시의 일부인 '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

- ◆ 季康子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계강자 문정어공자 공자대왈 정자 정야 자솔이정 숙감부정)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길 정치란 바른 것이니 당신께서 바름으로써 거느린다면(솔선수범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季康子 춘추 시대 말기 노(魯)나라 대부(大夫). 帥 장수 수, 거느릴 솔 = 率(솔)

공자(孔子, 기원전 551년 ~ 기원전 479년) : 공부자(孔夫子)라고도 불림. 유교의 시조(始祖)인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정치가 · 사상가 · 교육자, 춘추시대 말기에 서주의 제후국인 노나라(魯)의 무관인 숙량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이다. 뜻을 펴려고 전국을 주유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다 생을 마쳤다.

본문 속의 한자

꺾 익힐 습 說 말씀 설, 기별 열, 달랠 세 朋 벗 붕 愼 성낼 온 惟 오직 유 惡 악할 악, 미워할 오
 罔 없을 망, 어두울 망 殆 위태로울 태 周 두루 주 比 쫓을 비 由 말미암을 유 誨 가르칠 회
 惑 미혹될 혹 踰 밟을 유 矩 법 구 季 아우 계, 계절 계 康 편안할 강 帥 장수 수, 거느릴 솔
 孰 누구 숙 敢 감히 감

[2] 孟子

-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有鷄犬放이면 則知求之 하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 "或百步而後止 하며 或五十步而後止 하며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 하나잇고?" 曰 "不可 하나, 直不百步耳 언정 是亦走也 니이다." 曰 "王如知此면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하소서."
- 君子有三樂而王天下는 不與存焉 이니라. 父母俱存 하고 兄弟無故 가 一樂也요 仰不愧於天 하고 俯不忤於人 이 二樂也요 得天下英才 하여 而教育之 가 三樂也니라.

풀이와 해석

- ◆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不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鷄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인 인심야 의 인로야 사기로이불유 방기심이부지구 애재 인유계견방 즉지구지 유방심이부지구 학문지도 무타 구기방심이의의)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구나!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놓침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할 줄 알면서, 마음을 놓아 버림이 있으면 구할 줄을 모르니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아 버린 마음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舍 =捨(버릴 사), 哀哉 哉 의문형종결사가 붙어 감탄의 의미로 사용
 而已矣 ~일 뿐이다. ~일 따름이다. (=耳, 而已)
- ◆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 笑百步 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혹백보이후지 혹오십보이후지 이오십보 소백보 즉하여 왈 불가, 직불백보이 시역주야 왈 왕여지차 즉무망민지다어린국야)
 어떤 사람은 백 보를 달아난 후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오십 보를 달아난 후에 멈추어서, 오십 보로써 백 보를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양혜왕이) 말하길 "웁지 않습니다. 다만 백 보가 안 될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길 "왕께서 만약 이를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질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或 혹=어떤, 여기에서 혹은 어떤 사람을 뜻함. ~多於鄰國也 於 ~보다(비교)
 直 곧을 직, 다만으로 해석 ※ 直之雲從街 直(곧바로) 곧바로 운종가로 가다

전국시대에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초청해서 부국강병책(富國強兵策)을 물었다. 그러나 인의(仁義)를 중시하는 맹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혜왕은 계속 눈앞에 이득에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을 한탄하자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지요. 가령 싸우고 있는 중, 겁이 덜컥 난 두 병사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시다. 한 병사는 오십 걸음을 또 한 병사는 백 걸음을 달아났습니다. 이때 오십 걸음 도망친 병사가 백 걸음 도망친 병사를 보고 '너는 비겁한 겁쟁이다'라고 비웃었다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십 보든 백 보든 도망치긴 매한가지니, 조금 도망쳤다고 남을 비웃을 자격이 어디 있겠소.”

“그 이치를 아신다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펴고 계신 정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오십보백보'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이 전하를 존경하여 따르고 이웃 나라 백성들도 전하의 백성이 되고자 모여 들도록 만들고자 하신다면 다른 정치를 펴셔야 합니다.”

“어떤 정치를 말씀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옷과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가혹한 노역을 없애고, 늙은이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인의의 정치를 펴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백성들은 하나같이 전하를 칭송하며 진정으로 따르고, 이웃 나라 백성들도 모여 들 것이며, 국력 또한 자연히 부강해질 것입니다.”

- ◆ 君子有三樂 而王天下 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 (군자유삼락 이왕천하 불여존언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서 왕이 됨은 함께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계시고 형제가 사고 없음이 첫째 즐거움이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음이 둘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함이 셋째 즐거움이다.
- 王 왕노릇하다 不與存焉 왕이 되는 것은 三樂(삼락)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맹자(孟子, 기원전 372년?~기원전 289년?) : 맹자(孟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발전시킨 유학자 전국 시대 추(鄒)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가(軻)이고,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이다. 어릴 때부터 공자를 숭배하고,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켜 유교를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 장(仉)씨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맹모단기(孟母斷機) 등으로 유명한 현모로서, 어머니에게도 큰 감화를 받으며 기본적인 학업을 마친 뒤,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로 가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문인에게서 공자가 사상을 배웠다. 40세 이후에 인정(仁政)과 왕도정치를 주창하였으나 60세 이후의 삶은 알려진 바가 없다.

본문 속의 한자

義 율을 의 숨 집 사, 버릴 사(=捨) 袞 슬플 애 哉 어조사 재 鷄 닭 계 放 놓을 방 他 다를 타
 笑 웃음 소 步 걸음 보 耳 귀 이, 따름 이 走 달릴 주 鄰 이웃 린 與 더불 여 存 있을 존
 焉 어조사 언 仰 우러를 앙 愧 부끄러울 괴 俯 구부릴 부 忤 부끄러울 작

제 20 강 제자백가(諸子百家) (2)

[1] 老子

- 上善若水라. 水善利萬物而不爭하고 處衆人之所惡하니 故幾於道라.
- 不尚賢이면 使民不爭이요 不貴難得之貨면 使民不爲盜요 不見可欲이면 使民心不亂이라. 爲無爲면 則無不治라.
- 大道廢하여 有仁義하고 智慧出하여 有大僞하며 六親不和하여 有孝慈하고 國家昏亂하여 有忠臣이라.

풀이와 해석

- ◆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상선약수 수선리이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오 고기어도)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하니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上善 최고의 선 / 水善利 물을 만물을 잘 이롭게 하다.
處 처한다. 머문다 / 惡 미워할 오
幾於 ~에 가깝다.
- ◆ 不尚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爲無爲則無不治.
(불상현 사민부쟁 불귀난득지화 사민불위도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위무위즉무불치)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使民 백성으로 하여금~하게 만든다. → 백성들이 ~하게 된다.
貴 귀하게 여기다.
無爲 인위적인 억지와 노력으로 하지 않는 것
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
- ◆ 大道廢 有仁義 智慧出 有大僞 六親不和 有孝慈 國家昏亂 有忠臣
(대도폐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큰 도가 없어져서 인의가 있게 되었고 지혜가 나와서 큰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여 효도와 자애가 있게 되었고 국가가 혼란해져서 충신이 있게 되었다.
大道 무위(無爲)의 큰 도 大僞 자연 그대로가 아닌, 인위를 가한 것 六親 부모, 형제, 부부

[2] 莊子

- 不知周之夢爲胡蝶與아? 胡蝶之夢爲周與아? 周與胡蝶이 則必有分矣로되 此之謂物化라.

풀이와 해석

◆ 不知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此之謂物化

(부지주지몽위호접여 호접지몽위주여 주여호접 즉필유분의 차지위물화)

모르겠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서 내가 된 것인가? 나와 나비는 곧 반드시 구분이 있으되, 이것을 물화(物化)라 한다.

周 장주(莊周), 장자

與 ~인가?, ~와

物化 사물의 변화 몰아일체(物我一體)

[3] 墨子

- 若使天下兼相愛하면 國與國이 不相攻하고 家與家가 不相亂하여 盜賊無有하고 君臣父子가 皆能孝慈리니 若此면 則天下治리라.

풀이와 해석

◆ 若使天下兼相愛 國與國 不相攻 家與家 不相亂 盜賊無有 君臣父子 皆能孝慈 若此 則天下治

(약사천하겸상애 국여국 불상공 가여가 불상란 도적무유 군신부자 개능효자 약차 즉천하치)

만약 천하가 겸하여 서로 사랑하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과 집이 서로 어지럽게 하지 않으며 도적이 없게 되며 임금과 신하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효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

若使 만약 兼愛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함.

孝慈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나 자식에게 따뜻하게 대함 與 ~와

[4] 荀子

- 人生而有欲이니 欲而不得하면 則不能無求요 求而無度量分界면 則不能不爭이라. 爭則亂하고 亂則窮하니 先王惡其亂也하여 故制禮義以分之라.

풀이와 해석

- ◆ 人生而有欲 欲而不得 則不能無求 求而無度量分界 則不能不爭 爭則亂 亂則窮 先王惡其亂也 故制禮義以分之 (인생이유욕 욕이부득 즉불능무구 구이무도량분계 즉불능부쟁 쟁즉란 란즉궁 선왕오기란야 고제예의이분지)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하고 싶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구하되 분량과 경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다투면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곤궁해지니 선왕이 그 혼란을 싫어하여,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어 구분하였다. 不能無求 구하지 않을 수 없고 度量 길이와 부피, 분량 分界 나누어진 경계 先王惡其亂也 惡(오) 미워하다, 싫어하다

- ◆ 묵자(墨子, 기원전 470?~391?) 이름은 묵적(墨翟), 참사랑이 부족하여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남에게 이롭게 하면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평화롭게 된다는 겸애(兼愛)를 주창했다.
- ◆ 순자(BC 298년 ~ BC 238년) 이름은 순황(荀況), 중국 주나라 말기 전국시대의 유물론적 경향의 유가(儒家).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하여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질서를 지향하고 '예의(禮義)라는 수단을 제기하였다.
- ◆ 한비자(BC 약 280~BC 233년) 이름은 한비(韓非), 전국시대 말기 한(韓) 출신이다. 원래는 한나라의 공자로 순자(荀子)에게 배운 중국 고대의 이름난 사상가이자 법가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본문 속의 한자

爭 다툼 쟁 處 곳 처 衆 무리 중 幾 가까울 기, 거의 기 尙 숭상할 상 賢 어질 현 貨 재화 화
 盜 훔칠 도 欲 하고자할 욕 亂 어지러울 란 治 다스릴 치 廢 폐할 폐 訾 지혜 지 慧 지혜 혜
 僞 거짓 위 慈 사랑할 자 惛 어두울 혼 周 두루 주 夢 꿈 몽 胡 어찌 호, 나비 호(=蠅) 蝶 나비 접
 矣 어조사 의 謂 이를 위 物 만물 물 若 만약 약, 같을 약 使 하여금 사, 가령 사 兼 겸할 겸
 攻 칠 공 亂 어지러울 란 盜 훔칠 도 賊 도둑 적 慈 사랑할 자 此 이 차 度 법도 도
 亂 헤아릴 란 界 경계 계 爭 다툼 쟁 窮 궁할 궁 制 억누를 제, 만들 제 禮 예절 례 義 옳을 의